

전통이 살아있는 고향마을 ‘외암’

임 선 빈 (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1 외암마을의 산세와 풍수
- 2 ‘오양골’에서 유래된 양반마을 ‘외암’
- 3 외암마을의 첫 주인 평택진씨 4
- 4 예안이씨의 입향과 마을의 새로운 주인
- 5 외암마을의 큰 학자 외암 이간
- 6 선비가 많이 배출된 마을
- 7 명성황후와 퇴호 이정렬
- 8 택호가 남아 있는 집
- 9 외암의 오산과 오수
- 10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예학정신
- 11 세공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암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을 찾아가면, 누구나 어릴 때 뛰놀던 정다운 고향, 반가운 고향사람을 만난다. 온후한 충청인의 인심을 간직한 충청도 대부분의 마을이 그러하지만, 특히 외암마을에서는 푸근한 고향의 인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제 마을의 경관과 정취가 널리 알려지면서 주말이 되면 수천명의 내방객이 찾아오고, 여름방학에는 평일에도 수백명씩 들리지만, 아직도 이 마을에서는 입장료는 커녕 주차료도 받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충청도의 인심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외암마을에 들르면 21세기의 쫓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시간이 100년 전에 정지해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외암마을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에는 30분만에 마을을 휘 돌아보고는 ‘별거 아니네 ...’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듯이, 마을의 유래와 곳곳에 담겨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취를 알고 나면, 발길을 돌리기가 아쉬워 며칠이라도 마을에 머물고 싶어진다.

외암마을의 산세와 풍수

외암 민속마을은 설화산 자락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설화산(雪華山)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설악산(雪嶽山), 이중환의 『택리지』에 설라산(雪羅山), 『증보문헌비고』에 서달산(西達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봉우리가 다섯이 있다고 하여 오봉산이라고도 불리운다. 높이 441m가 되는 붓끝 같은 봉우리가 솟아 있어서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설화산이 비치는 곳에는 인물이 많이 난다고 전해져 왔다. 그래서 그런지 설화산의 동북쪽에는 여말에 최영장군이 살다가 사위인 맹사성이 계승했다고 전해지는 맹씨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에는 외암민속마을이 있다.

맹씨행단이 있는 마을인 배방면 중리와 송악면 외암리 외암민속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은 금북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갈래에 해당한다. 죽산의 칠현산에서 한남정맥과 갈라진 금북정맥의 본 줄기는 안성의 청룡산에서 서남으로 흘러 직산의 성거산 - 망일치 - 월조산 - 연기의 의랑치 - 천안과 공주의 차령 - 쌍령 - 광덕산(갈현) - 각흘치 - 송악 - 남운치 - 차유령(차동고개)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본줄기의

갈현에서 북쪽으로 뺀 맥이 광덕산을 만들고 다시 떨어져서 설화산이 되어 온양 동쪽에 이른 것이다.

조선후기의 유명한 인문지리학자인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일권기를 ‘차령에서 서쪽으로 뺀 맥이 북쪽으로 떨어져서 광덕산을 만들고 다시 떨어져서 설라산이 되어 온양 동쪽에 위치하였다. 민중포전(閔中莆田)의 호공산(壺公山)이 중천에 빼어나서 우뚝한 홀(笏)과 같은 형상인데, 이 산이 그와 흡사하다. 이 산을 동남쪽에 있는 길방(吉方)이라 하는 것은, 아산·온양 등 여러 마을에서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과 문학을 공부한 선비가 많이 나온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외암이 배출한 대학자 외암 이간 선생은 「외암기」에서 지세를 논하면서 온양군이 번성한 까닭을 온천과 산천의 지세에서 찾으면서, 특히 산천의 영이함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지세를 살핌에 있어서 지명을 신비스런 동물과 연관시키는 시적 표현은 외암 지형에 대한 극찬이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사실 외암 주변의 산수는 「외암기」 등에 묘사된 대로 긴밀한 국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편으로 개천의 흐르는 곳을 막아선 월라산이 비록 낮다고는 하나, 마을 서쪽 동구의 중첩한 소나무 숲이 허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남서쪽으로는 속칭 ‘바람동산’이라 부르는 작은 구릉이 다가서서 트인 곳이 없다.

‘오양골’에서 유래된 양반마을 ‘외암’

설화산 남서쪽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언제부터 왜 ‘외암’이라고 불리웠을까?

그 동안 외암리에 관한 여러 글에서는 외암 이간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호로부터 외암이라는 마을 명칭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의 호에서 마을명이 유래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1723년(경종 3) 11월에 외암 이간이 쓴 「외암기(巍巖記)」에 의하면, 이미 이전부터 ‘외암’이 마을명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간의 호 외암에서 마을명 외암이 유래한 것이 아니라, 마을명 외암에서 이간의 호 외암이 비롯된 것이다.

‘외암’이라는 마을 명칭은 외암리의 서쪽에 있는 역말[송악면 소재지인 역촌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역말에는 조선초기부터 이미 시흥도의 중심역인 시흥역이 있었고, 역승이 부임하여 아산-온양-신창-예산-덕산에 이어지는 역로와 신창-면천-당진에 이어지는 역로를 관할하였다. 당시 외암마을은 이 시흥역의 말을 거두어 먹이던 곳이라서, ‘오양골’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 ‘오야’에서 ‘외암’이라는 마을명이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후기부터 유명했던 양반마을 외암의 명칭이 오양골에서 유래했다고 하니,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은가?

오늘날 외암마을의 한자표기는 ‘外岩’인데, 조선후기의 『호구총수』에는 ‘巍巖’ 『온양군읍지』에는 ‘嵬岩’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外岩’이라는 표기는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 처음 확인된다.

외암마을의 첫 주인 평택진씨

외암리에는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이미 500여년 전에 강씨(姜氏)와 목씨(睦氏) 등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문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외암마을에는 주로 예안이씨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예안이씨의 족보와 외암 이간의 「외암기」에 의하면, 예안이씨 이전의 외암마을 주인은 평택진씨였다. 지금도 참봉 진한평(陳漢平)의 묘가 외암마을 남쪽으로 약 500m의 거리인 구릉의 골말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이 마을의 주인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묘소의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150m 정도의 위치에는 과거 그 위용을 뽐내었을 집터와 연못의 흔적

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진참봉의 집터와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암군수택에 걸려있는 「열승정기」 현판의 추기에 이사종이 세웠던 정자 열승정이 곡촌(谷村)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곡촌 즉 골말은 바로 집터와 연못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다. 오늘날에도 1/5,000 지형도에는 이곳이 열승정리로 적혀있다. 현재 열승정리에는 단 한채의 집도 남아 있지 않지만, 18세기에 편찬된 조선후기 『온양군읍지』만 해도 열승정리에 편호 5호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승정리는 조선후기까지만해도 작은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에 이르면 이미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평택진씨가 외암마을에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예안이씨의 입향과 마을의 새로운 주인

오늘날 외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절반은 예안이씨인데, 이 예안이씨가 외암마을에 입향한 것은 평택진씨 참봉 진한평의 사위인 이사종(李嗣宗, ~1589)이다. 즉 예안이씨는 이사종이 평택진씨의 사위가 되면서 외암마을에 입향하게 되었다. 당시 진한평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 있었는데, 예안이씨 이사종이 진한평의 장녀와 혼인하면서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진한평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종은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외암마을에 터를 잡게 된 것이다. 마을에 구전되는 이야기가 진참봉의 재산규모를 짐작케 한다. 즉 진참봉이 담배를 심었는데 관에서 조사 나오자 이를 숨기려고 모두 늦그릇으로 덮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전은 진참봉이 살았던 16세기에 조선후기에나 있었던 담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후대의 윤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당시 진참봉의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진참봉의 묘소는 오늘날까지도 예안이씨가 의령남씨 과평윤씨와 함께 외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토지[위토(位土)]가 12마지기나 된다.

그 동안 외암마을의 예안이씨 입향조는 조선 명종때 장사랑을 지낸 이연(李堧)이라고 알려져 왔다.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마을 안내판에도 그렇게 써여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암 이간의 「외암기」에 의하면, 예안이씨가 온양에 우거한 지 이미 5세대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사종이 이간의 5대조에 해당하고, 이연은 6대조이다. 또한 「외암기」에서는 선조 별제부군(이사종)이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考] 참봉공(이연)의 묘를 송악의 외록에 정하면서, 별업을 외암에 축조하여 열승정(閱勝亭)이라 하고 서울에서 물러나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열승정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후기에는 읍지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 위치에 대해 읍지에서는 군의 남쪽 7리 지점으로 화산의 남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터는 최림에 의해 씌여진 「열승정기」의 추기에 촌곡(村谷-골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참봉 묘소의 남쪽 골짜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예안이씨의 외암마을 입향조는 이연의 묘소가 송악에 있다 하더라도 이연이 입향조가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사종이었다. 입향동기도 이사종이 이미 외암리에 살고 있던 평택진씨 참봉 진한평(陳漢平)의 사위가 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암마을에는 한때 과평윤씨 의령남씨 평산신씨가 함께 이웃하여 살면서 한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씨 외에는 모두 마을을 떠나 외암 이간이 살던 시기인 18세기 초에 이르면 이씨가 외암의 주인이 되었다. 즉 예안이씨의 외암 입향조인 이사종의 5세손인 외암 이간의 시대에 이르면, 예안이씨가 외암마을의 주인임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마을명을 자신의 호로 사용한 것만 보아도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외암마을의 큰 학자 외암 이간

외암 이간(1677~1737)은 조선후기의 문신·학자로 기호학맥의 적통을 계승한 수암 권상하(權尙夏) 문화의 팔학사(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1710년(숙종 36) 장릉참봉(莊陵參奉)으로 천거되었으나 취임하지 않

았으며, 6년 뒤인 1716년에 다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 자의가 되었는데, 이때 조정에서는 그의 나이가 젊은데도 벼슬이 뛰어오름을 논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717년 종부시정을 제수받고, 1725년(영조 1) 회덕 현감·경연관을 거쳐 충청도도사 겸 해운관·익위사익위를 제수받았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외암선생은 관직생활보다도 조선후기의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그의 학문이 더욱 주목된다. 조선조 성리학은 중기를 고비로 사단칠정에 대한 퇴계 이황의 이기호발설과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의 대립으로 그 뒤 치열한 논변이 벌어졌는데, 후기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잠잠하였던 사단칠정논변이 주기적인 율곡 이이계통의 기호학과 안에서 주리와 주기의 논변으로 이행됨으로써 성리학의 불꽃이 재연되었으니, 이것이 인물성동이논쟁이다. 본격적인 논쟁은 수암 권상하의 문하 8학사 중에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외암 이간과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남당 한원진 사이에서 야기되었다. 외암 이간이 충청도의 온양 외암리에서 태어났듯이, 남당 한원진은 충청도의 결성 남당리(대하축제로 유명한 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후에 남당의 지지자는 호서(湖西)에 많았으므로 인물성이론을 ‘호론(湖論)’, 외암의 지지자들은 서울에 많았으므로 인물성동론을 ‘낙론(洛論)’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외암민속마을에 들리고 남당으로 대하를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조선시대 3대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논쟁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외암선생의 인물성동론을 낙론이라고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국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들까지도 외암선생이 한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숙종실록』에서도 ‘호서사인(湖西士人) 이간’이라는 표현이 보이듯이 외암선생은 온양 향리에서 주로 지낸 인물이다. 31세 되던 숙종 33년에는 권선재를 건립하여 후학들에게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 영조 3년 51세로 졸하였는데, 정조는 이조참판과 성균관 재주를 증직하였으며, 순조는 이조판서를 추증하였다. 마을에는 외암선생의 뜻과 학문적 유업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외암선생의 기일인 음력 3월 14일에 불천위제를 모신다. 외암선생의 제사는 조선왕조에서 영원히 신주를 모시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인정한 불천위 제사이다. 묘소는 외암마을의 서쪽 100여m 떨어진 구릉에 서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묘소 주위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있다. 외암선생은 오늘도 외암마을을 드나드는 수백 수천명의 행렬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선비가 많이 배출된 마을

옛부터 외암리는 삼다(三多)의 마을이라 했는데, 그 첫째가 석다(石多)요, 둘째가 언다(言多)요, 셋째가 반다(班多)라고 한다. 양반이 많은 마을이라 일컬어지듯이 외암리에서는 조선후기에 많은 과거 급제자들이 배출되었다. 우선 문과 급제자로는 이성렬과 이정렬을 들 수 있다. 이성렬(李聖烈, 1865~)은 188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응교, 직각승지, 대사성, 참찬까지 지냈으며, 독립운동에 관여하였고, 뜻을 이루지 못한 자 음독자살했다고 한다. 이정렬(李貞烈, 1868~1950)은 1891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참판에 까지 이르렀고, 고종황제로부터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호를 받았다.

조선시대 생원과 진사 합격자의 명단인 『사마방목』을 통해 확인되는 외암출신 생원·진사들은 이태형(李泰亨, 1684-합격시기), 이관병(李觀炳, 1735), 이이병(李頤炳, 1738), 이하주(李夏胄, 1744), 이의현(李宜鉉, 1798), 이광현(李光鉉, 1798), 이장현(李章鉉, 1810), 이원효(李源孝, 1822), 이장열(李璋烈, 1885), 이중렬(李重烈, 1891), 이용대(李用大, 1894) 등 모두 11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사병(李師炳, 1714~1782)과 이건주(李建胄, 1747~1819)가 학행으로 천거되었다. 특히 이간의 손자인 이건주의 천거사실은 『정조실록』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건주는 1796년(정조 20)에 충청도 관찰사 이정운이 국왕의 분부에 응하여 천거한 3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정조는 호서에서 특별히 추천한 온양의 유학 이건주를 불러 만나본 후에 인사담당부서인 이조로 하여금 특별히 벼슬에 등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건주가 죽은지 3년이 지난 1822년(순조 22)에는 선비들의 상언으로 예조에서 고 광홍수 이건주(李建胄)의 효행에 정려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기도 하였다.

명성황후와 퇴호 이정렬

퇴호 이정렬(1868~1950)은 조선말기에 이조참판을 지낸 인물로 고종으로부터 퇴호거사라는 호를 받았다. 원래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에서 출생하였으나, 10세 되던 해에 외암 이간의 5세손인 가선대부 이상달(李相達)에게 출계하였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열심히 하여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특히 이정렬의 할머니가 명성황후의 이모였는데, 명성황후는 이정렬을 매우 사랑하여, 필묵과 침지를 내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17세 되던 해, 명성황후에게 당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24세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이조참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34세 때 일본이 강제로 통상조약과 사법권이양을 요구하니 이에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종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당시의 책임이 외부대신에게 있으므로 그를 탄핵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정렬은 일제의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20번이나 넘게 올렸으나 아무 효과가 없자, 마침내 최후의 방식을 택하였다. 그것은 임금이 참석하는 아침 조회에 등불을 들고 말을 거꾸로 탄 채 출근하는 방식이었다. 임금이 참석하는 조회시간에 말을 탄 채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왕에 대한 엄청난 불경이었다. 물론 수위가 입구에서 저지하였지만 이를 뿌리치고 조회장소까지 들어갔다.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었다. 나라가 지금 그름 밤중처럼 캄캄한 상황이라서 등불을 들었고, 말을 거꾸로 탄 이유는 주변의 호위병들이 칼을 내리칠 때 이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면으로 보고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칼을 피할 수 있지만, 뒤로 들어가면 볼 수 없으므로 뒤통수 쪽으로 내리치는 칼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황성신문에서는 연 3일 이정렬의 강직함을 가리켜 ‘조선에도 봉황이 올랐으니 아침 햇볕이 내리 쏘일 것이다.’고 찬탄하였다.

그러나 공의 뜻이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은 나라를 팔아먹는 조정의 신하가 될수 없다며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하였다. 영왕께서 ‘일심사군(一心事君)’과 ‘퇴호거사(退湖居士)’의 4자를 써주고 나서, 복직을 강력히 요청하고, 고종 역시 비서승 이우규에게 이정렬은 의로운 신하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진실로 보필할 자이니 속히 복직시키라고 전교하였으나, 끝내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조정으로부터 여러차례 복직명령이 있었으나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직에서 물러나 송악으로 낙향한 그해 11월 칠은계를 조직하여 충남 일대의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참판댁’으로 불리워지는 퇴호 이정렬이 살던 집에는 그의 유품이 많이 남아 있다.

택호가 남아 있는 집

외암마을은 기와집과 초가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기와집의 경우에는 참판댁, 병사댁, 감찰댁, 교수댁, 참봉댁, 국사댁, 영암댁, 신창댁, 양성댁 등의 택호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들 택호는 모두 예안이 씨와 관련이 있는데, 몇몇 택호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영암군수댁(건재고택) : 영암군수를 지낸 이상익(李相翼, 1848~1897)이 살던 집이라서 붙은 택호이다. 이상익은 외암 이간의 6세 직손이다. 현재 영암군수댁에 거주하는 이상익의 고손 이준경씨의 말에 의하면, 외암 이간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 집터였다고 한다. 영암군수댁은 건재고택이라고도 불리우고, 문화재 등록은 건재고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재(健齋)는 이상익의 아들인 이욱렬(李郁烈, 1874~1960)의 호이다. 사실 현재의 가옥이 완성된 것은 건재당 때라고 한다. 영암군수댁에는 외암집 목판 외에도 많은 옛 전적과 고문서, 간찰 등의 유물이 남아 있으며, 추사 김정희 글씨의 주련(柱聯)이 걸려 있다. 외암마을 곳곳에 추사선생의 묵향이 배어 있는데, 이는 추사선생이 외암 이간의 증손인 이병현(李秉鉉)의 사위로, 추사가

살던 예산 신암 용궁에서 외암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사선생이 외암리에 자주 들렀다고 한다.

참판택 : 이조참판을 지낸 퇴호 이정렬(李貞烈, 1865~1950)이 살던 집이라 참판택의 택호를 갖게 되었다. 이정렬은 조모가 명성황후의 이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성황후로부터 각별한 은총을 받았다. 참판택은 이정렬이 고종황제로부터 하사받아 지은 집으로, 고종황제가 이정렬에게 하사한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사호를 영왕이 9세때 쓴 현판이 남아 있다.

송화택 : 송화군수를 지낸 이장현(李章鉉, 1779~1841)으로 인해 붙은 택호이다. 이장현은 호가 초은(樵隱)이며, 순조 10년 식년시에서 진사가 되었다.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가 현감까지 지냈다. 문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존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사종의 13세손인 이용구(李用龜, 1854~)가 경학으로 천거되어 성균관 교수를 지냈다고 하여 붙은 **교수택**, 홍경래난을 진압한 병사(兵使) 이용현(李容鉉, 1783~1865)으로부터 유래한 **병사택**, 이사종의 12세손인 이중렬(李重烈, 1859~1891)과 그의 아들 이용후(李用厚, 1886~1955) 부자가 참봉벼슬을 지낸 연유로 얻은 **참봉택** 등이 있다. 택호를 보고 찾아다니다 보면,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기와집이 아니고 초가집인데도 기와의 택호보다 더 유명한 택호가 새로 생겼다. 모 TV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던 장소인 ‘소문난 여자’ 집이 바로 그것이다.

외암의 오산과 오수

외암 이간은 외암 주변의 산수를 오산(五山)과 오수(五水)로 나누어 극찬하였고, 외암오산(巍巖五山)과 외암오수(巍巖五水)라는 7언절구로 된 10편의 시를 남기고 있다. 그가 언급한 오산(五山)은 주산인 설화산[雪峩]을 비롯하여, 광덕(廣德), 송악(松岳), 월라(月羅), 면잠(眠蠶)이고, 오수(五水)는 용추(龍湫)·인곡(獐谷)·반계(磐溪)·역천(驛川)·온정(溫井)이다.

외암오수의 하나인 반계(磐溪)라는 명칭과 반석(磐石)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석은 외암마을의 입구에 있는 바위이다. 반석이 역천 내 바닥에 깔려 있고 마을쪽으로 외암동천(巍岩洞天)과 동화수석(東華水石)이라는 석각이 있다.

용추(龍湫)는 송악면 강당리의 안쪽, 먹시 아래 냇가에 있는 못이다. 옛날에 용이 올랐다 하는데,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바위에 ‘산고무이 동침화양(山高武夷洞沈華陽)’ 여덟자를 새기었는데, 일인들이 동침화양의 글자를 거꾸로 따서 양화담(陽華潭)이라 하여 널리 선전하였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인근에 널리 알려진 피서지인데, 예전에도 외암리의 선비들이 자주 찾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용추의 바위 이곳 저곳에 과거 외암리 출신 선비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외암 이간의 「외암기」에도 석문용추(石門龍湫)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예학정신

외암마을에는 조선조의 예학정신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후손인 이득선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득선씨는 1970년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시묘를 교과서대로 실천한 인물이다. 그 당시 31세였던 그는 한양대학교 토목과 조교를 하고 있다가 서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고향에 내려와 3년 시묘라는 고행길에 들어간 것이다. 3년 동안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발은 짚신, 머리에는 굴건, 옷은 제복을 입고 생활했다. 허리에 매는 허리띠는 왕골, 벗집, 마 껍질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무려 5근이나 되었다고 한다. 집에서 묘소까지는 산길로 3km, 걸어서 50분 거리였다. 묘소 옆에는 원두막을 지어 놓고 종일 여기에서 생활하였다. 겨울에 눈이 쌓일 때에는 아무리 춥더라도 묘소를 양손으로만

치웠다. 집안에 내려오던 가풍을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예학의 정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이득선씨가 살고있는 참판댁에는 사랑채 부엌 옆에 가로 90cm, 세로 70cm 크기의 아주 작은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그 용도는 거지에 대한 배려였다. 요즈음에는 농촌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기 힘들지만, 60~70년대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서너명씩의 거지들이 아침밥을 먹을 무렵 구걸하러 왔다. 다른 집에서는 거지들이 찾아오면 의례 바가지 하나에 밥과 국, 깍두기 등을 섞어서 주었고, 거지들은 문간에 서서 그 바가지의 비빔밥을 허겁지겁 먹곤 하였다. 그러나 참판댁에서는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밥 한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그릇을 솥그릇에 각각 담고 이 그릇들을 다시 소반에다 차려서 사랑채 부엌 옆의 마루에다 놓았다. 사랑채 부엌 아궁이에서는 항상 손님 방에 불을 때고 여물을 끓이므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거지들에게도 온기가 남아있는 마루에 앉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집안의 전통이었다. 비록 거지이지만 그들도 인간인데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배려를 감지한 거지들도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마치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부엌에다 내려놓고 갔다. 다른집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거지들도 이 집에 와서는 점잖게 행동하였다고 한다.

외암마을의 입구 다리를 건너기 전 좌측에 열녀 안동권씨 정려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듯이 정려는 정·측면 1칸으로 맞배지붕의 익공식 건물이며, 정려 건물의 안에는 명정 현판과 정려기가 걸려 있다. 열녀 안동권씨는 진사를 지낸 권연(權淵)의 딸로 13세의 어린 나이에 예안이씨 집안의 이용덕(李用德)에게 시집을 왔다. 이용덕은 예안이씨 20세손으로 외암 이간의 후손이며, 퇴호거사 참판 이정렬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집온 다음해에 남편이 15세가 되면서 요절하였다. 그렇지만 안동권씨는 청상과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늙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와 함께 변변치 못한 제물이지만 먼저 돌아가신 남편에게 올리는데 정성을 다하였으며,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면에서는 화목함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부인의 길을 평생 걸으면서 나이 86세가 되어 조카인 이흥선을 아들로 삼았으나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 이흥선의 동생인 이득선의 아들을 손자로 삼아 가문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주위의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며, 더불어 문중의 노력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추천에 의거하여 아산의 향교는 물론이고, 군수가 문교부와 문공부에 특별히 천거하여 표창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예안이씨의 문중에서는 안동권씨의 열행을 후세에 알리고자 1978년에 조선시대 방식의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세워진 정려이지만, 마을이 조선시대의 문화에 머물고 있는 곳이니, 열녀 정려의 건립이 당연한 듯이 보인다.

세공사(細工師)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암마을

외암민속마을은 1978년에 충청남도에서 「민속보존마을」로 선정하고, 1982년 3월 「민속관광마을」로 개칭한 바 있으며, 1988년 8월 18일자로 국가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변경되었다가, 2001년 1월 7일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제236호)로 변경·관리되고 있다.

외암민속마을은 다른 지역에 있는 민속마을(안동 하회마을, 순천 낙안읍성, 제주 성읍마을 등)에 비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덜 미쳤고, 그동안 찾는 이들도 많지 않았으나 이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관광객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아직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도 별로 미치지 않아 마을의 간단한 역사 조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외암민속마을은 여전히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박옥(璞玉)으로, 세공사(細工師)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